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2. 23.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네거티브 발언, 한 발 더 나아간 '팩트체크' 필요 (2/19)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링

2022년 2월 19일(토) <KBS 뉴스 9>

이날 대선 보도는 각 대선 후보의 동정을 간단하게 다루었으며 <대선 톨아보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 전략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자 강세 지역을 방문한 것이 그 지역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수위 높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짚어주는 것은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 후보의 발언 중 사실관계가 다른 발언을 짚어주고 정정해주긴 했지만, 네거티브를 일삼는 양당 후보에 대한 비판이 팩트체크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후보들의 수위 높은 발언들을 두고 이것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코멘트하는 것은 자칫 이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보다는 그러한 네거티브 발언들이 선거 유세 현장을 차지하면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짚어줄 필요가 있다.

KBS는 지난 2월 15일자 <대선 톨아보기>에서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후보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유세를 하고 또 정책에 기반하여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코멘트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한다면 이번 보도에서도 단지 네거티브 발언

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이 사라진 것을 비판해야 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언에서 정책은 그 비중을 잃고 있다. 혹은 ‘언론이 읊기는’ 후보들의 발언에서 정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사실 지난 며칠간 그나마 후보들 사이에서 공약과 관련하여 공방이 벌어진 사안이 있다면 바로 ‘광주 복합쇼핑몰’ 건이었다. 지난 16일 윤 후보가 광주 유세 현장에서 복합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할 것을 공약하면서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유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검증되어야 할 사실 관계가 있는데, 바로 윤 후보가 말하는 ‘복합쇼핑몰’이 이미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으로 실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윤 후보 발언에서 언급된 ‘민주당이 반대한 사업’인 신세계 복합단지 사업은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 순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토크보기>에서는 윤 후보가 복합쇼핑몰 공약을 언급하면서 함께 발언한 광주시 GDP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했지만 사실 좀 더 다각도에서 검증이 들어가야 할 사안은 ‘광주 복합쇼핑몰’ 건이었다. 그러나 KBS 뉴스 9은 지난 16일자 보도에서 윤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호남 정치를 독점하고는 복합쇼핑몰 하나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고 발언을 읊었을 뿐 이후 보도에서 해당 발언 및 공약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 이 건은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통 재벌의 골목 상권 침해와 시민들의 편의 보장이라는 오랜 대립 구도가 다시금 점화되었고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까지 증첩되어 있다. 공약이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별도로 다루지 않은 것이 아쉽다.